

# 광주 도심 곳곳 무인성인용품점 '청소년 탈선 우려'

### 신분증만 있다면 입장·구매 가능...출입제한 유명무실 청소년 통학로 한가운데 위치·대책 필요 목소리 높아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출입을 제한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광주 도심 곳곳 무인성인용품점이 청소년들의 일탈과 탈선 장소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무인점포의 특성상 관리자가 없는 데다, 성인 신분증만 소지하고 있을 시 비교적 출입·구매가 자유롭다는 점에서 청소년 출입 제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저녁 광주 북구 용봉동 전철우사거리, 용봉택지로 사거리를 중심으로 어느 방향 가릴 것 없이 길게 늘어선 각종 음식점과 술집 사이로 화려한 조명의 '무인성인용품점'이 눈에 띄었다.

점포 유리창과 전자간판에는 오가는 행인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외설적인 문구가 쓰여 있었고 출입문 앞에는 청소년 출입을 막기 위한 성인인증기가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기기가 별도의 지문확인, 얼굴대조 등 본인 인증 과정 없이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만 확인하다 보니 성인 신분증만 있다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했다.

하나마나한 성인인증 후 들어가 가게 내부에는 각종 성인용품이 즐비했고 결제 역시 무인결제시스템으로 운영돼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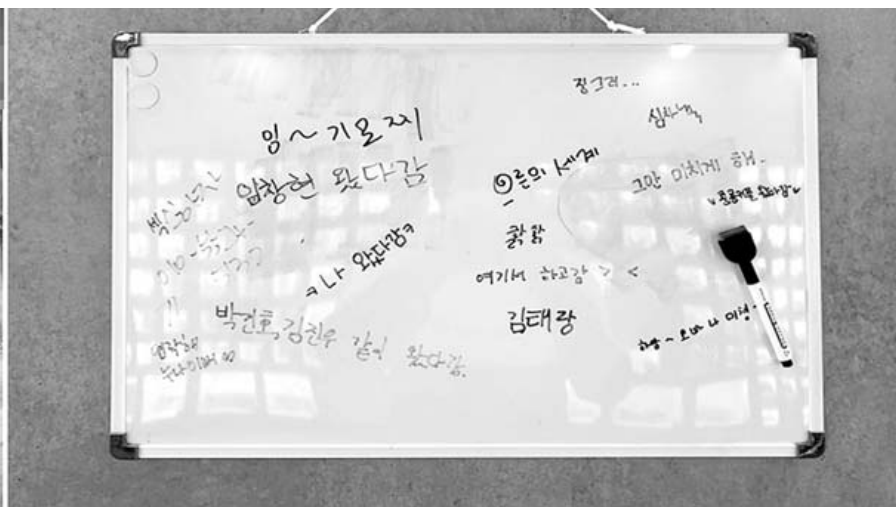
이렇다 보니 성인 신분증만 있다고 보면 간편하게 출입·구매가 가능했고 이로 인한 신분증 도용 등 청소년 탈선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또 해당 점포는 학원, 독서실, 스타벅스 카페까지 거리가 약 600m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이를 오가는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레 노출돼 있었다.

학부모 서모(48)씨는 “고등학교생 아들이 학원에서 집으로 향하는 길 한복판에 성인용품점이 버젓이 자리해 훑시라도 잘못된 방법을 써서라도 들어가 보려 하



18일 저녁 광주 북구 용봉동 전철우사거리에 위치한 무인성인용품점 앞을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은 점단 연신로에 위치한 성인용품점 내부 화이트보드에 음담패설과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노출돼 있다.



점단 연신로에 위치한 성인용품점 내부 화이트보드에 음담패설과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노출돼 있다.

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무인으로 운영되면 신분증 도용을 막을 수도 없을 건데 청소년 출입금지 등 안내문이나 무슨 소용이나”고 토로했다.

비슷한 시각 점단 연신로 91번길에 위치한 무인성인용품점 내부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마찬가지로 신분증 확인만으로 출입이 가능했고 가게 내부 화이트보드에는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비속어와 각종 음담패설, 왔다 갔다는 실명 인증과 함께 연락하라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겨두는 등 개인정보가 널려 있어 호기심으로 방문한 청소년이 남긴 개인정보를 악용한 각종 범죄와 피해도 우려됐다.

특히 이곳은 신용중학교와 빛고을고등학교까지 500m 거리도 되지 않아 인

근 주민들은 장소 제제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세무서 신고 후 영업이 가능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직선거리 200m 이내에만 들어서지 않는다면 제약을 받지 않아 이 거리만 넘어선다면 교육시설 인근이라도 영업이 가능하다.

주민 임모(52)씨는 “주변을 산책하면서 인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무렇게나 성인용품점을 들락거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호기심으로 들어가려는 학생들도 문제지만 매일같이 오가는 통학로에 지런 가게가 있다면 어떻게 눈길 안가겠다. 하다못해 사람이 직접 관리라도 해서 출입을 막는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광주본부 오늘 총파업 강행

### 광주시청 앞 5천여명 집회 예고...경찰 '불법 엄정 대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가 20일 총파업을 강행한다.

19일 민주노총 광주본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 광주시청 앞에서 '불평등 타파! 평등사회로 대전환!'을 주제로 전국 14개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10·20 총파업 대회에 동참한다.

이번 총파업 대회 3대 요구사항은 ▲비정규직 철폐 및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적용 ▲정의로운 산업전환 실현과 노동자의 일자리 국가보장 ▲주택·교육·의료·돌봄·교통 등 공공성

강화다.

이날 총파업 대회에서는 5천여명의 조합원이 집결하고 참석하지 않는 이들도 각자의 생업 현장에서 교육 및 총회 등으로 뜻을 함께한다.

광주지역 총파업대회는 민주노총광주본부 이종욱 본부장의 대회사와 비롯한 연대사와 투쟁사 발문, 영상 및 공연 후 선언문 낭독으로 진행된다.

이후 '불평등 타파, 평등사회로의 대전환'을 슬로건으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까지 홍보 행진을 이어간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조합원들에게 방역지침을 전달했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이 경기장과 갈촌식장 등과는 달리 집회만은 제외하고 있다며 헌법이 정한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방역당국과 경찰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은 대규모 불법집회에 대해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집결단계부터 적극 제지·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가 집회 자체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민주노총에서는 전국 동시다발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대규모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장소 주변 교통관리로 시민불편 최소화 및 대화경찰을 배치해 불법행위 자체와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는 한편, 신고된 인원을 초과한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파손 수창초교 육교 붕괴 위험 높아 철거

크레인 차량이 교각을 들이받아 육교 일부가 파손된 광주 수창초교 육교가 긴급 안전 진단 결과 붕괴 위험성이 높아 결국 철거된다.

19일 광주 북구청 등에 따르면 전남 크레인 차량(집게 차·너클 크레인)이 교각과 충돌해 파손된 육교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을 한 결과 2차 붕괴 위험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오전 4시30분께 광주 북구 북동수창초등학교 인근 육교를 지나던 A(65)씨의 집게 차(너클 크레인)가 육교 교각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육교 하부 구조물(빔)이 파손됐다.

북구는 해당 육교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을 진행한 결과, 육교 하부 보(거더)가 파손돼 육교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다.

특히 차량 통행에 의한 진동과 2차 충돌 사고 발생 시 육교가 붕괴할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북구는 이날 오후 8시를 기해 육교 밀을 지나는 왕복 6차로 도로(금남로 5가·유동사거리)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긴급 철거 준비에 돌입했다.

## 광주·전남 어린이집 CCTV 80% 노후

### 강선우 “아동학대 발견·대응 역할...관련 기준 마련해야”

광주·전남지역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대다수가 5년 전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3

만5천86개 중 81.3%인 2만8천526개가 5년 전인 2015년과 2016년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조사된 전국 어린이집 노후 CCTV 비율인 68.8%보다 12.5% 증가한 수치다.

광주와 전남지역 어린이집의 경우 전

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는 전체 1천3개의 CCTV 중 2015년 설치가 832개, 2016년 21개 등 총 853개로 5년 전 설치 비율이 85%를 차지했다. 2017년 26개, 2018년 14개, 2019년 33개, 2019년 52개, 올해 25개가 신규 설치됐다.

전남은 1천52개의 CCTV 중 2015년 852개, 2016년 48개로 5년 전에 설치된 CCTV가 총 900개(85.5%)다. 2017년 25개, 2018년 27개, 2019년 35개, 지난해 33개, 올해 32개가 설치됐다.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주거시설에 설

치된 CCTV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마다 교체 주기를 명시하고 있지만, 복지부 소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는 어린이집 CCTV 내구연한과 점검·교체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아동학대사건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CCTV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복지부는 어린이집 노후 CCTV 관련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활용도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남대 청소노동자 10% '산업재해' 당해

### 전국 국립대 중 산재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전남대병원 청소노동자 10명 중 한 명이 산업재해를 당해 전국 국립대 중 산재 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국립대학교 11곳과 국립대 부속병원 10곳으로부터 받은 '2016-2021.9 청소노동자

산재 실태'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에서 총 23건의 산재가 발생했다.

다른 국립대와 부속병원이 같은 기간 평균 3.3건이 발생한 데 비해 전남대는 7배나 많았다. 연도별로는 2016년 2명, 2017년 1명, 2018년 4명, 2019년 4명, 2020년 5명, 2021년 1-9월 7명 등이다.

이 의원은 “전남대는 빨리 산재 예방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비해 청소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 TIME CITY

명품시계수리전문점

## 명품브랜드 시계 수리전문점 타임시티(TIME CITY)

- | 책임 A/S
- | 명품 쿼츠 시계 수리전문
- | 오토매틱 수리 전문
- | 스위스, 독일 시계 수리장비 최다보유 (A/S센터와 동일장비 보유)

광주 광산구 첨단강변로 100 (쌍암동 695-1)

**영업시간** 평일 10:00 - 20:00 공휴일·토요일 10:00 - 18:00 일요일 휴무

**문의** 010-8475-5472 \* 근무시간에만 통화가능

급매 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유재관 010-6495-3787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늦으시면 앓차하십니다**

**[ 돈되는 상가 ]**

○ 나주시 용산동 가족놀이 테마공원(10만평) 입구 4차선 대로변 제1층 주거지역대지2,281㎡(690) 단층건물 937.52㎡(283.6) 매가:9억5,000 \*\*\*대형음식점,농산물직판장,휴게소종합매장 최적

**[ 나주시 대호동 동신대옆 비주택 원룸 ]**

○ 자연녹지 3,467㎡ 2층 건물 3층 톨60개 ○ 급매8억 \*\*\*월1,000만원 수익 가

**급히 구합니다 --- 손님 다수 대기중입니다**

○ 병원신축용땅 1,000㎡ 내외  
○ 월세 및 투자용 상가 건물 10억~50억  
○ 모텔 · 호텔(지역무관)  
\*\*\*부동산 무엇이던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